

2024.04.19(금)

한국 무용의 향연 개최

- 한국 전통 예술계의 중진과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무용이 어우러진 무대 -

주일한국문화원(원장 공형식, 이하 문화원)은 서울국제문화교류회의 공동주최, 한국예술종합학교 세계민족무용연구소 협력으로 한국 전통 무용의 진수와 함께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무용을 함께 선보이는 '한국의 풍경' 무대를 4월 17일(수) ~18일(목) 이틀간 주일한국문화원 한마당 홀에서 선보였다.

이번 공연은 2023년 7월 동 문화원에서 개최한 '한국 전통무용과 음악의 향연' 무대의 큰 호응에 힘입어 후속공연으로 기획하게 되었다.

전편에 이어 허영일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명예교수가 예술감독을 맡았으며, 김해숙 전 국립국악원 원장의 가야금 연주 오프닝 무대를 시작으로 양성옥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명예교수의 태평무, 윤미라 경희대 무용학부 교수의 달구벌 입춤 등 **전통 예술계 중진들의 무대와 함께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 무대 총 16편의 프로그램**을 이틀에 걸쳐 선보였다.

이틀간 약 600명의 관객이 객석을 가득 매웠으며, 국립극장, 신국립극장 등 일본 예술계 관계자 및 도쿄예술대학 교수 등 학계 관계자, 일본 거주 외국인도 다수 관람하며 한국 무용의 수준을 높이 평가했다.

코로나 19(COVID-19) 팬데믹으로 감소되었던 무대 공연 및 한일예술 교류는 부족했던 문화에 대한 목마름을 채우듯 올해는 더욱 활발해져 문화원에서는 이후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 금난새가 해설하는 클래식 콘서트 'Peace Music Festival in Tokyo ~ Artistic Director Gum Nanse' (5/13,14,16), 일본 민음 음악박물관과 함께 하는 양국 젊은 음악가의 교류 무대 '한일 청년음악가의 만남' (6/14,15)등을 연이어 준비하고 있다.



행사 전경

<담당연락처 : 박지훈(행사) / 조은경(홍보) ☎ +81-3-3357-5970 ✉ pr@koreanculture.jp>